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외교, NGO 담당기자

발 신 :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

제 목 :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비상 시국회의 개최 (**6/17**)

전송일 : **2020년 6월 17일**

담 당 : 박정윤 (준비위 언론담당, **6.15**남측위원회 정책실장 010-2253-4058)

1. 화해와 평화를 기원합니다.
2.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0**년을 맞아, 민간 평화통일운동 연대 기구와 각계 시민사회 단체들로 결성된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에서는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지금, 남북공동선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뜻과 각계의 입장을 발표하는 비상 시국회의를 **6월 17일** 아래와 같이 개최했습니다.
3. 핵심 메시지와 요구는 별첨 시국선언문을 참조 바랍니다. (* 비상 시국회의인 관계로 발언자의 발언문은 사전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양해 바람)

▣ 붙임**1.** 시국회의 개요 및 각계 대표 발언자

▣ 붙임**2.** 시국선언문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

(상임대표)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지은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고문)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박창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첨부1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비상 시국회의

- 일시 : 2020년 6월 17일(수) 11시
- 장소 :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 (서울 중구 명동)
- 주최 :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
- 순서
 - 참가자 인사
 - 각계 발언
 - 시국선언문 낭독
- 각계 대표 발언자
 -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 윤은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회원사업위원장)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김태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 엄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통일위원장)
 -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 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 주요 참석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 양정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

- 양덕창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남북교류위원장, 천주교주교회의 부장)
- 김태현 (한국종교인평화회의, NCCK 국장)
- 강영식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 이재선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회장)
- 손동대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본부 집행위원장)
- 김성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청년미래위원장)
- 김혜순 (정의평화인권을위한 양심수후원회 회장)
- 유병수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사무처장)
- 김강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 정성희 (평화철도 집행위원장)
- 이요상 (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 조원호 (통일의길 대표)
- 최병현 (주권자전국회의 연대사업위원장)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비상 시국선언문

남북관계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계기로 남북통신선이 차단된 데 이어, 북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고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 된 지대에 군대를 다시 진출하겠다는 것과 더불어 서해상의 훈련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남북합의에 따른 남북연락수단이 모두 사라지고, 북측이 군대를 뒤로 물렸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이 다시 군사지역으로 되돌아가고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지는 등 남북관계가 남북공동선언 이전 시대로 역행할 심각한 위기이다.

어렵게 합의한 남북공동선언이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사실상 파괴되어 온 결과가 드러난 것으로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나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대북 제재라는 객관적 환경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남과 북이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발표한 약속이었다.

이 약속은 철저히 지켜졌어야 마땅하나,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아온 미국이 정한 테두리 밖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고, 합의사항은 어느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 독자적으로 중단할 수 있었던 대북전단살포 조차 방치하는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군사적 위협 축소 합의 정신에 역행하는 조치도 계속되었다.

남북이 함께 맺은 공동선언들은 평화통일을 향한 거래의 열망과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소중히 지키고 이행해야 할 공동의 자산이다.

남북공동선언이 백지화되는 상황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남과 북 모두 남북공동선언을 반드시 지켜내어 상호 적대와 긴장 격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실효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모든 사항들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군사훈련 중단 등 군사적 위협을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필수적인 남북교류협력 문제에 대한 한미워킹그룹의 개입과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북측 또한 상황을 악화시킬 조치들을 멈추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한다.

남북은 상호 적대적 언사와 위협을 자제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 및 도로연결, 군축으로의 지향 등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바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지금은 남북합의를 지켜내고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벼랑 끝에 선 위기 앞에서, 시민사회 또한 남북공동선언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다.

2020년 6월 17일

시국회의 참가자 일동